

平和와 環境保全⁽¹⁾

秦 教 勳
(國民倫理教育科)

I. 들어가는 말

인간은 항상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대처럼 전 인류가 불안 속에서 전전공공하며 사는 시대는 일찌기 없었다. 과거의 평화문제는 국지적인 것이었지만 오늘날의 평화문제는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범 세계적인 것이 되었다. 예를 들어 현대의 무기는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전 지구를 파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생태학적 위기는 지구의 존속조차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0년 신년 메시지에서 “자연 자원의 피폐로 인하여 세계의 평화는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날 ‘환경 위기’, ‘생태계의 위기’, ‘환경 오염’, ‘자연 파괴’, ‘자연 보전’, ‘자연 보호’ 등의 말들은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언론 매체와 전문 서적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중적인 서적의 주제로도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 인간은 이 자연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다.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며 산다라고 말을 하건 자연을 정복하며 자연을 이용하고 변화시키면서 산다고 말을 하건 간에, 인간이 자연속에 존재하고 자연과 더불어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과의 교섭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당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즉 자연의 위기와 함께 인간의 위기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자연 환경의 위기는 인간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무분별한 경제 개발로 인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자연 환경의 파괴를 초래한다. 따라서 생태계의 순환은 단절되고 생태권의 재생 능력과 자정(自淨) 능력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하나의 지구촌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지구촌은 밑바닥으로부터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다. 지구촌이 붕괴되고 있는 원인은 인간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기보다는 착취하고 수탈하여 파괴를 일삼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생태학적 위기는 하나의 생물과 다른 생물 그리고 모든 생물과 자연 환경과의 연계가 무너지기 시작함에 따라 지구 전체를 유지시켜 주는 동적 상호 작용이 비틀거리기 시

(1) 본 연구는 90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 선정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작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환경 파괴는 인간의 단견이 빚어 낸 결과로서 인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생태학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와 인간학의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환경 문제가 평화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다루고자 한다.

II. 평화의 의미와 생태학의 상관성

평화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커네스 볼딩은 “평화라는 말은 너무나도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어렵다”(2)고 지적하고 있다. 평화의 개념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사회단체들과,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평화의 의미를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소극적 의미에서 보면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갈통은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한다기보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갈등과 분쟁을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인간 공동체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평화를 적극적인 의미에서 규정해 보려고 한다.(3) 바이츠제커 역시 평화의 개념을 적극적인 의미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 상태라고 규정한다.(4) 그에 의하면 삶의 조건들이란 (1) 전쟁으로부터의 해방, (2) 기근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3)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4) 무지로부터의 해방, (5) 비참한 주거생활로부터의 해방, (6) 생활환경(곧 자연환경)의 보호, (7) 착취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8)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를 가리킨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곤란에서 해방된 상태를 넓은 의미로서의 평화라고 말할 수 있다.

평화 구현 운동은 전쟁 유발의 원인이 되는 모든 갈등과 적대 관계의 해소, 탈 이데올로기화, 상호 이해를 근거로 하는 화해와 공존 관계 형성, 발전과 반핵운동, 비폭력·비무장운동, 불평등의 해소,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 운동, 소외와 빈곤의 극복 운동, 그리고 공해, 오염과 같은 자연 파괴에 대한 생태학적 자연 보호 운동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많은 노력들을 포함하고 있다.(5)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평화 문제가 단순히 국제 정치 또는 의

(2) Kenneth E. Boulding, *Stable Peace* (Austin-Londo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8) 6~30면 참조.

(3) J. Galtung, “Peace Research: Past Experiences and Future Perspectives”, in *Peace and Social Structure, Essays in Peace Research*, (Atlantic Highland: Humanities Press, 1980), 244~262면 참조.

(4) C.F.V. Weizsäcker, *Der Ungesicherte Friede*, (Göttingen, 1968), 9면 이하.

(5) R. Vogt, (hrsg.) *Angst vorm Frieden: Über die Schwierigkeiten der Friedensentwicklung*

교 및 군사학의 문제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평화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류의 모든 지성이 총동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평화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평화 구현은 현대 사회 윤리의 중요한 과제이다. 평화는 일조 일석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며 이 세상, 즉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실천할 때에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환경 보호, 즉 자연 보전과 생태계의 안전이 우리의 평화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생기가 넘쳐 흐르는 맑고 깨끗한 산천 초목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또한 맑은 하늘에는 새들이 유유히 날고 강과 바다에는 물고기가 넘실거리며 들과 산에는 뭇 짐승들이 한가로이 노닐 때, 인간은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Ⅲ. 人間과 自然의 關係

“자연!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나왔으며, 자연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도무지 자연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괴테(Goethe)는 일찌기 갈파했다. 인간과 자연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서로 교통하면서 응답하고 있는 파트너이다. 인간은 자연의 구성요소로서만 자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은 하나의 연대공동체(Solidargemeinschaft), 즉 같은 운명공동체를 이룩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순환의 파괴와 자연자원의 남용은 부메랑처럼 파괴를 일삼는 인간에게 심대한 타격을 되돌려 주고 있다. 자연의 미래없이 인간의 미래도 없다. 그러므로 인간과 자연간의 협동은 언제나 중요하다. 인간과 자연은 서로 대적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共存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은 값싼 수퍼마켓이 아니다. 자연이 경제적 목적으로만 이용된다면, 또 자연이 단지 경제적으론 관심되어지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파괴된다. 그러한 조치는 자연을 평가절하하게 된다. 자연을 가볍게,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직접 소비할 수 있는 商品으로 취급하는 자는, 자연과 불행한 관계를 맺게 된다. 자연을 순전히 공리적으로, 즉 순수한 물질적 효용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의 가치를 잘못 본 것이다. 우리가 자연을 단지 물질적 평가의 대상으로만 본다든가, 경제적 이용의 대상으로만 본다든가, 기술적 계획과 자연과학의 탐구 대상으로만 본다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는 심각할 정도로 악화된다. 자연은 거대한 원료저장소 이상이다. 우리의 자연적 생활공간은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쌓아 놓은 한갓된 “상품”의 저장소가 아니다. 사람들의 욕구와 기분에 따라 할부로 이용하는 거대한 수퍼마켓으로 자연을 보게 된다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참혹하게 파괴된다.

für das Jahr 2000 (Darmstadt, 1989). 277~308면 참조 ; O.K. Flechtheim, *1st die Zukunft noch zu retten?* (Hamburg, 1987), 83~85면.

자연을 쇼핑센터로 간주하는 자와 자작으로 ‘생태학적 상품’을 가능한한 많이 끌어 모으려는 자는 자연환경과 삶의 세계에 대한 관계가 좋지 않음을 입증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자연은 계획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사고 팔 수도 있고, 수리할 수도 있고, 함부로 사용할 수 있고, 종내에는 버릴 수도 있고, 소모시킬 수 있는 소비재, 가령 자동차와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자동차는 대응품이 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자연은 아무런 대응이 없다. 도무지 자연과 맞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자연은 경제적, 기술적 비용—이용—분석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상적, 심리적, 미적 가치를 현시한다는 사실을 인간으로 하여금 통찰하도록 한다. 인간이 마음을 사로잡는 경치를 감상하고 나서 우리는 풍요함은, 값으로 따질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나 반가사유상과 같은 예술품의 가치는 그들에 투자한 자료의 값과 비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순전히 이용도만을 따지는 사람은 자연은 말없고 언제나 교환하고 대치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가치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연을 기술·산업적인 시각으로만 관찰하는 자는 자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며 자연을 멸시하고 평가절하한다. 그러한 자는 자기 자신의 영혼까지도 산업화한다.

〈자연손상은 의의손상이다.〉

자연은 결코 물질적인 생활수단만이 아니다. 자연은 인간이 全적으로 의존하는 善이다. 인간은 자연을 초월해서 자기 자신에게로 오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과 함께 연대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진정한 운명적인 동지임을 자연은 스스로 입증해 준다. 그러므로 자연보호는 인간의 현존재의 조건을 포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 주는 데 필연적으로 기여한다. 자연과 경치는 현존하고 있음으로 의의를 갖는다. 이용될 수 있는 것만을 의미있고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조작성과 이용성만을 문제삼는 인간은 자연의 완전한 의의를 상실한다. 현대사회의 의의위기(Sinnkrise)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본래 주어져 있는 한계가 무너지고 표준적인 기준점이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 속에 그 원인이 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며 미친 것이다. 우리가 자연 경치(자연)를 文化경관으로 형성하고, 자연을 기습하여 자연을 문화로 변경시키면, 우리는 자연적 생활공간의 핸디캡에 의지하게 된다. 우리는 자연공간을 만들지 않았으며, 우리는 자연공간을 만들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기술로 많은 것을 만들고 싶어한다. 자연에 대한 方向定立이 되지 않고는 인간은 본질적인 安全도, 근본적인 올바른 가치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과 경치는 의의를 부여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휴식할 환경과 안심하고 거주할 집을 지어주기 때문이다. 고향을 체험하는 기본은 安息(Geborgenheit)에 대한 행복한 느낌이다. 고향을 상실한 사람들은 ‘單子’로, 또는 유랑민으로 정처없이 떠돌아 다닌다. 그들은 아무런 正體(자기동일성)도 발전시키지 못하며, 삶의 목표와 의의도 없이 서

로 무관하게 동요할 뿐이다.

어떤 특정한 경관, 예컨대, 풀밭, 전원, 숲, 언덕, 호수, 산 등에 의하여 성격이 부여된 고향은 “인류의 요람”(Theodor Heuss)이다. 니체가 허무주의를 근대의 “가장 섬찍한 손님”이라고 평가했을 때, 그는 의의상실(생의 무의미)을 고향상실과 연관시켰다. 자연상실이란 사실상의 의의상실이다. 자연은 참된 거주공간을 마련해 준다. 자연은, 문화적, 특히 인간적 삶의 형성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기본적인 생명적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자연없는 인간은 문자 그대로 지반을, 자기의 발밑에서 확고한 기반을 잃는다. 고향이란 서정적, 도덕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심오한 생태학적 개념이기도 하다. 우리의 고향의 집을 건축하고 형성하는 것은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소여들이다. 자연보호는 언제나 고향보호와 같은 것이다. 고향보호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공간의 보호일 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거주공간의 보호이기도 하다. 고향이라는 현상에서 인간과 자연의 연대적 용접이 가장 빨리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안식할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은 자연환경으로부터의 疎外의 결과이기도 하다. 자연과 생명을 하나라고 느끼는 사람만이 건강하고 안식을 얻는다. 인간의 내면적 세계, 즉 집의 安危는 자연의 집의 安危와 운명적으로 상관된다. 집의 아늑함을 모르는 자는 뿌리가 없는 자이다. 자연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인간의 安定도 統속도 없다. 자기의 발 밑의 地盤을 잃은 자는 또한 자기 자신까지도 잃는다. 자연상실과 고향상실은 허무주의의 징후이며 奈落으로 떨어지는 지반상실이다. 大地와 아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자연과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정신적 平衡과 정서적 위생에 극심한 障礙가 온다. 자연에 이르는 통로가 봉쇄되면, 텃줄이 끊긴 인간은 바로 死亡 槓塞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자연으로부터 이탈된 자는 불행한 의식을 갖는다(Hegel). 프랑스의 실존철학자이며 소설가인 까뮈(A. Camus)는 이렇게 기술했다; 그는 그의 청년시절에, 특히 자살할 생각이 엄습해 올 때 자주 자기 고향의 海邊에 가서 앉아 있곤 했다고 한다. 압도해 오는 광활한 바다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기만 해도 부조리의 심연에서 쓰러지기 직전의 그를 지켜주었다고 했다. 거대한 자연의 연출은 우스꽝스럽게도 자기의 머리를 쥐어짤려고 하는 인간의 오성보다는 훨씬 더 의미있는 것이 있음을 그의 눈 앞에 펼쳐 주었다고 했다.

안정된 適法性을 가지고 있는 자연은 기준점을 부여한다. 자연의 춘하추동의 변화는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인간의 삶은 우리를 떠받들고 있고 지지해 주고 있는 자연의 삶과 연대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행복하다. 인간은 신체의 영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安寧도, 그의 모든 기분까지도 자연에 의존한다.

확트인 자연경관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하는가! 조용히 속삭여 오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삶의 찬가를 들을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빅토르 위고(Victor Hugo)는 이렇게 말했다; “자연은 말하고 있으나,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슬프기 그지 없다.” 자연이 우리에게 무언인가를 의미할 때, 자연은 의의를 가진다. “자연은 모든 일세마다 위대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다.”라고 괴테는 일찌기 읊조린 바 있다.

〈자연 상실은 가치 상실이다.〉

자연과의 만남을 감사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가치의 의의를 깨우치게 된다. 가치란 본질적으로 인간의 정서에 속하는 것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驚異**의 의의를 전해준다. 왜냐하면 자연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기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꽃과 곤충에게서 작품의 함목적성만을 본다면, 우리의 세상과 사람은 더욱 초라하게 보일 것이다. 수십만종이나 되는 식물의 기묘한 색깔을 만든 마술사는 너무나도 색깔이 화려하고 다양한 나머지 왜? 라는 물음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자연은 대양, 원시림, 산맥, 푸른 초원과 자연의 향기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참된 의의를 전해준다. 자연은 성장의 의의를 전해준다. 이 의의를 깨닫는다는 것은, 현대인들이 초조한 나머지 느린 성장과정을 기술적으로 촉진시켜 보려고 할수록 더욱 더 어려운 것이다. 현대인은 자연적인 발전에 대해서 전혀 시간을 유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일에 쫓겨 분주한 나머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연스러운 삶의 진행의 의의는, 가령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피고, 시드는 것은 흥분한 초조와 열띤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성장의 의의는 우리 시대의 모든 조작가능성의 환상은 위험한 망상임을 지적할 수 있다. 자연은 평화스러운 고요와 명상적 안식의 의의를 가르쳐 준다. 전인미답의 골짜기와 환상에 잠겨 있는 연못의 체험은 고요가 무엇인지, 신앙심을 불러 일으키는 고독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아마도 심리적, 도덕적으로 숲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도 이와 상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숲 속에서 영혼은 기운을 얻으며, 정서가 再生된다. 숲은 원동력을 채워주는 주요소이다. 숲은 목재업이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용대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조건과 정서적인 형태를 이룬다. 숲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안식은 평화의 체험이다. 숲의 적막이 정신건강에 좋은 것임을 평가할 줄 아는 자는 인간의 환경과의 교제에서 오는 긴장을 풀 줄 아는 능력을 가진다.

자연은 아름다운 것의 의의를 전해준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정서를 풍부하게 해준다. 자연에 대한 미적 관계가 없는 인간은 얼음같이 찬 실용성의 음울한 주체가 되어 야비해지고 황폐화되고 말 것이다.

자연은 삶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심리적 요구가 충족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우리 인간은 자연과 함께 하나의 삶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IV. 생태학과 자연 보전

생태학은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유기체의 관습, 생활상 그리고 그 유기체들이 주변 환경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다루는 생물학의 한 분야라고 설명된다. (6) 생태학은, 이론적·추상적인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분명한 명증성을 가지고 있는 과학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생태학은 물론 자연 보전과 동의어는 아니다. 생태학 연구의 주 목적은 자연에서 생물이 어떻게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탐구하는 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태학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자연의 생태계 그 자체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지 자연 보존과 자연 보호의 기술만을 탐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태학은 인간이 자연과 서로 얼마나 상호 의존적인가, 또한 동물과 식물이 무기물과 얼마나 상호 의존적인가를 깨닫게 해 준다. 따라서 이러한 깨달음은 파괴된 자연을 회복시키며 더럽혀진 자연 환경을 정화하고 모든 자연 파괴의 행동을 멈추게 하도록 촉구한다. 그러므로 긴 안목으로 볼 때 생태학은 자연 보전과 인간의 생존 그리고 평화 문제와도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는 학문이다.

우리는 지금 후기 산업 사회에 살고 있다. 산업 사회는 경제 개발을 통해 사회와 인간의 삶이 진보할 것이라는 꿈을 인간에게 심어 주었다. 그러나 경제 개발은, 첫째, 사회 계층 간에, 지역 간에, 그리고 국가 간에 구조적으로 갈등을 초래하여 인류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둘째, 경제 개발이 산출한 관료 제도, 기술 지배는 인간의 지적 활동을 부기화, 가치 중립화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아노미 현상을 가져오고 비인간화를 가속화시키며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셋째, 경제 개발은 전 지구상에 생태학적 위기와 자연 파괴를 유발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속 자체까지도 위협한다. 결과적으로 경제개발은 인간의 평화 구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생태학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해 왔다. 맥클로스키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학자들은, 사람들이 한 때 뉴턴의 물리학에 부여했던 중요성을 생태학에 부여하고 있다. (7)

생태학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진 것은 인류의 근본적인 생존 유지가 바로 생태학적 위기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딘은 그의 글 “평화가 아니라 생태학”을 통해

(6)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1971), 458~459면 ; Oxford English Dictionary (1978), 628 · ; E.P. Odum, *Fundamentals of Ecology*, 제 3 판(Philadelphia: Saunders, 1971), 13면 ; R.K. Kinzelbach, *Ökologie, Naturschutz, Umweltschutz* (Darmstadt, 1989), 14면.

(7) H.J. McCloskey, *Ecological Ethics and Politics* (New Jersey: Rowman and Littlefield, 1983).

이렇게 말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생물학 분야에서 두 가지의 중대한 계기가 있었다. 그 하나는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를 발표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카슨이 1962년 <침묵의 봄>(Silent Spring)을 출판한 것이다. 전자의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후자의 중요성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⁸⁾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생태계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조직이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도 잘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생태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⁹⁾

이와 마찬가지로 뒤보스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일 인간이 그 자신도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삶의 복잡하고 미묘한 거미줄 같은 사슬(올가미)에서 본질적인 매듭을 구성하는 유기체를 별 생각없이 소거해 버린다면, 인간은 궁극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말 것이다.⁽¹⁰⁾

뒤쉬는 생태학과 환경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인간이 생태계에서 저지른 변화가 인간의 생명을 존속시키는 데 있어서 삶을 지탱시켜 주는 조직의 통합을 위협하고 있다.……환경 문제는, 때로는 우리의 눈에 띄지 않기도 하지만, 그것은 천천히, 조용히 작용한다.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은 깊게 뿌리박혀 있는 사회 가치관과 종교 가치관, 생활 방식, 경제 조직과의 갈등을 유발한다. 하지만 환경 위기는 치명적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세계사를 통해서는 알려진 적이 없는 국제 협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¹¹⁾

V. 생태학적 위기와 인간의 위기

맥헤일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인간이 지구를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위협스러운 유기체가 되게끔 만든 것은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서 극히 짧은 기간에 일어났다.

또한 모리슨도 인류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생태학적 위기에 관해서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그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자연이라는 선물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변형시켜 왔는데

(8) G. Hardin, "Not Peace, but Ecology", in *Diversity and Stability in Ecosystem* (New York: Biology Department,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Upton, 1969), 151년.

(9) G. Hardin, "Foreword", in *Living in the Environment*, ed. G.T. Miller (Belmont Mass.: Wadsworth, 1975), 5년.

(10) R. Dubos, *Man, Medicine and Environment* (Harmondsworth: Penguin, 1970), 15년.

(11) R. Disch, (ed.) *The Ecological Conscience* (Englewood Cliffs. New rsey: Prentice hall, 1970), xiii.

그것은 자연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발견, 기술, 조직적 숙련의 수준은 인간의 환경에 대한 요구와 인구 수준에 맞추어 자연의 평형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지난 몇 십년 동안 에너지, 물, 공기 및 그밖의 원료 그리고 열려 있는 공간을 필요에 따라 함부로 남용하다 보니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 서게 되었다. 특히 폐기물 처리에서 그러하다.

밀러는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인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오늘날 생태학은 참으로 인류가 '생태학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다.

바우헤이는 생태학적 위기에 관해서 이렇게 관찰한다.

지난 200년동안 계속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인구, 너무나도 많은 공해 요소, 너무나도 많은 소비, 너무나도 많은 독소, 너무나도 많은 긴장을 만들어 냈다. 반면에 식량, 에너지, 주거, 교육, 건강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에 있다. 우리는 화석 연료, 광석, 농경, 녹지, 야생 생물, 공기, 물, 처녀림과 같은 자원을 낭비했다. 재난(災亂)은 닥쳐왔다. 재난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생태계의 모든 지평에 걸쳐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저술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생태학적 위기'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다. 자원 고갈, 인구 증가, 오염, 종의 멸절, 야원(野原) 및 원시림의 상실 등. 에르리히가(家)의 사람들은 생태학적 위기의 주요 원인을 인구 증가로 파악하고 있다.

인구의 폭발적 증가야말로 지난간 수십 억 년의 지구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다.……인류 그 자체는 멸절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어떤 지구학적인 사건도 인간에게 있어서의 인구 과잉이라는 사건과 견줄만큼 지구의 생명에 위협을 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 카손은 생태학적 위기의 주 원인을 공해라고 본다.

인간이 환경에게 가한 침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공기, 땅, 강과 바다가 위협스럽고 심지어 치명적인 물질로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해의 대부분은 자연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게끔 만들었다. 이제 악마의 사슬(공해)은 생명 존속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물계 안에서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이를 물리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앞에서 살펴 본 생태학자, 환경 윤리학 및 생태학적 윤리학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의 표현은 거의 대부분 인간의 존속을 염려하는 내용의 것이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관심에 대해서도 일부 학자들은 언급하고 있다. 아무튼 지구의 생태계의 안녕, 그리고 지구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 생명없는 구성체의 안녕에 관해서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생태계의 위기가 극한에 도달했고, 자연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으며, 자연이 과도하게 착취당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생태학적 위기에 관하여 저술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만일 우리가 생태학의 법률과 사실들을 충분하고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이 생태학적 위기는 사전에 방지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맥크로스키는 이러한 작업은 과학적 작업이 아니라 철학적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생태학적 위기의 해결책을 위해서 생태학적 윤리학의 설립을 강조한다. 그는 생태학적 윤리학의 과제를 생태학과 윤리학의 상관성, 자연 보존, 동물의 생존권 등에 대한 규명으로 파악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생태학적 정치학의 과제라고 여겼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태학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것은 서구인들의 자연관이 근본적으로 잘못 정초되어 있다는 점이다. 첫째, 사회적 진화론자들의 자연주의는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우승 열패, 자연 도태라는 생각을 인간에게 주입시켜 생물계 일반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심어 주었다. 그리하여 인간이 마치 지구의 착취자나 폭군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았거나 것처럼 행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처럼 인간의 자연 지배를 옹호했다.

둘째, 환경 위기를 몰고 온 서양에 있어서의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즉 인간의 자연 지배가 그리스도교 문화의 유산이라는 점이다. 그리스도교가 자연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교사한 공모자이거나 조종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교가 지배적인 곳일수록 자연 파괴가 극심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학이 스토아 학파의 자연에 대한 도덕적 무관심설(adiaphora)에 대체로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교의 자연관은 오늘날 성서 해석학자들이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해석되며 선택되고 있다. 성서의 창조 신앙에 관한 말씀에서 하느님은 그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똑같이 ‘지으시다’(br)는 말씀을 하며, 똑같은 축복을 내리시고 생물의 질서 정연한 공생을 염려하시며 인간에게 하느님을 대신해서 동물을 ‘지배’(kbs)하는 과제를 위임하셨다(창세기 1:21-27, 2:7, 1:28-29, 9:2). 그러나 후세의 서양인들은 ‘동물의 지배’, ‘땅의 지배’를 인간이 조작한 절대 군주제의 모델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인간을 지상의 왕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성서의 ‘지배’라는 말씀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질서 속에서 일하는 파수꾼의 모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자연을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하고 규제하며 서로 보장해 주면서, 자연을 조심스럽게 인도하고 선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셋째, 서양인들은—관념론자들이건, 유물론자들이건간에—자연을 한갓 물질로만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기계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은 그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다. 자연은 인간이 필요에 따라 임의로 열었다 닫았다 해도 좋은 중위적인 것은 아니다. 그 자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책임을 위임받았지만, 인간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일 부분이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릴 전권을 위임하신 것은, 질서와 평화를 이루면서 자연을

생명으로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가 된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연을 단지 기술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 또는 경제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환원시켜 버리는 태도야말로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생태학적 위기에서 자연관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도는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땅 위의 모든 것은 오직 하느님의 광영을 위해서만 그 존재 이유를 갖는 것이다.

Ⅵ. 자연 보전과 평화 구현

인간이 자연 보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실현할 때 비로소 이 지구상에서 평화가 구현될 것이다. 우리는 자연 보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하나의 방향은 자연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의 방향은 인간의 윤리적 의무의 범위를 확대해서 자연을 인간의 삶의 조건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며, 세번째 방향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할 줄 아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모색은 최근 그리스도교적인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힐페르트, 아우어, 로크 등의 신학자들이 이에 속한다. 또한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Ⅳ.1. 첫번째 방향

자연은 단순히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서만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주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동물과 식물을 도구로만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저술가들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새로운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 즉 ‘동반자 관계’, ‘협력 관계’, ‘연대성’, 심지어 ‘형제 관계’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이 첫번째 방향을 편의상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슈바이처의 ‘생명에 대한 외경’이라는 구호를 통해 볼 수 있다.

인간은 그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도와 줄 때, 그리고 어떤 생명체에도 해가 되는 일을 삼갈 것을 간청하고 또 여기에 그 자신이 순응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윤리적이다. 윤리적인 인간은 이 생명 또는 저 생명이 얼마만큼의 값이 나가는가를 묻지 않으며, 또 그것을 얼마만큼이나 지각할 수 있는가를 묻지도 않는다. 그에게는 삶 그 자체가 거룩하다. 그는 나무에서 나뭇잎 하나도 따지 않고, 어떠한 꽃도 땅가뜨리지 않으며, 또 어떠한 곤충도 밟아 죽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한다.

슈바이처의 이 글은 생태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다. 로크

는 슈바이처로부터 자극을 받아 자연에 대한 외경 사상을 환경 윤리의 최초의 요청이라고 까지 말한다.

슈바이처는 “윤리학은 살아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을 지칭한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는 모든 현상에는 각자가 자기 자신 안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은 ‘삶의 의지’가 있다고 여긴다.

(2) 인간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자연과 공속(共屬) 관계에 있고 아주 밀착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환경 윤리학의 출발점이다. 환경 윤리학은 자연과 자연의 개별적 구성 부분이 고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서양 근세사상의 주관과 객관이라는 대립적인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 인간과 자연은 마치 적대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평등 원칙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바이츠제커는 이와 관련하여 신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신학자들은—그들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는 기원설에서 나온 결과인—우리와 동류인 피조물에 대한 형제애를 이제는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자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단지 동물보호만으로 다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식물이나 무생물체까지도 인간이 책임을 지는 전망을 할 수 있다.

비인간적 존재와 사물은 자신의 성분과 질서 기능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개체적 권리의 소유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 의식을 상실한 자 등의 권리를 전통적 규범에서도 이미 인정해 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같은 맥락에서 그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3)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생각은 자연이나 자연의 부분을 신적인 것이 나타나는 양태의 전체로 간주할 때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특히 아시아의 종교에서, 또 그리스도교 이전의 신화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세계의 핵심과 모든 생물과의 원일성(原一性, Ureinheit, 근원적으로 하나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윤리적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드레버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환경 윤리는 기존의 그리스도교의 자연관의 근본적 수정 없이는 전망이 없는 단순한 시도에 그치고 만다.……이 근본적 수정은 그 밖의 다른 종교들과 고대 종교들의 지혜를 그들의 중요한 상징으로 받아 들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교가 그 자신을 위해서도 태교의 신화를 금기시 하는 것을 포기하고 또 자연 종교와의 교류에서, 특히 아직 살아 있는 위대한 인도의 종교성과의 교류에서 그 신앙이 가르쳐 주고 있는 우주론적, 심리학적 관계를 재발견하는 것,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따라서 그는 지금까지 서양의 정신사에서 사이비 범신론으로 또는 무신론으로 취급되어

배척되었던 하나의 종교적 세계의 체험, 즉 하나의 통일 사상으로 되돌아 가서 보다 더 근본적인 새로운 종교적 성찰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V. 2. 두번째 방향

우리는 앞서 말한 첫번째 방향에 대해, 자연 그 자체는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생각으로부터 환경 윤리를 정초하려는 시도라도 간단히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모두 문명 비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한편 두번째 방향은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를 규명해 보려는 시도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인간 이외의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인간이 정해 놓은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원료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간의 책임이 단지 인간과의 관계 형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편의상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상호간의 질적 차이에 대한 폭넓은 비교 타당성이다. 인간은 동물, 식물과 비교해 볼 때 그 차이란 실상 아주 작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동물이나 식물, 암석이 인간처럼 주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아무튼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인간까지도 쉽게 멸시하게 만든다. 동물과 식물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성을 교육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2) 두번째 문제점은 자연과의 교제에 있어서 그 표준에 관한 것이다. 그 표준이 자연 그 자체 안에서만 발견되어야 한다면, 자연을 무엇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표준은 달라진다. 따라서 자연 안에서 나타나고있는 고통이 삶의 원칙에 가장 깊이 저항하는 것으로서 파악되거나 아니면 다 함께 보전되기를 목표로 하는 삶과 죽음의 형평으로 지향될 때 자연은 도덕적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3) 세번째 문제점은 자연이 자기 목적을 수행한다고 할 때 과연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인간성이 인간의 기본적 요구와 갈등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은 자기 주장의 필연성과의 갈등에 빠질 수 있다. 가령 영양 섭취는 생물간에 갈등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항상 얻는 쪽과 빼앗기는 쪽이 있기 때문이다.

슈바이처 역시 이 점을 시인하면서도 어떤 상태라고 할지라도 삶을 멸절시키거나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는 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딜레마를 우리는 기술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기술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환경 위기의 해결을 기술 발전의 억압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인간과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를 아시아의 자연관에서 찾거나 고대 신화를 부활시키자는 요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것이 부활된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생각이 실제로 자연을 절대 파괴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줄 수 있느냐 하

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을 신성시하는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Ⅶ. 3. 세번째 방향

자연을 “미학적”으로 바라보는 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하여 스스로 자유로와야 한다. 그는 배타적 과학적 탐구의 관심으로부터도 자유로와야 하며, 농사, 건축공학적 배려, 군사작전, 관광지의 구획정리 등으로부터도 자유로와야 한다. 미학적 시야는 마음에 와닿는 경관 전체와 관계된다. 예컨대, 청남색 하늘은, 기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즉, 기상학적 관점으로 고찰되지는 않는다. 한 그루의 보리수가 얼마나 많은 그림자를 드리우느냐는 물음으로는 보리수가 직관되지는 않는다. 초원을 장차 수확을 거둔 건초를 제일 먼저 생각하도록 하게 하지는 않는다. 아름다운 녹색은 눈을 좋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름다운 녹색을 보고 감탄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미학적 시야는 자연을 아름다운 것으로 파악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바로 폐적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의 초경제적, 전기술적 조명은 과학의 자연지배가 발전하면서 그 빛을 잃었다. 그래서 휴식과 여가를 위한 경치는 하나의 유용한 지역으로 변모되었다. 사회는 경치를 자기에게 알맞도록 만들며, 이용하고 악용한다. 자연의 아름다움 조차도 상업화된다. 다시 말해서 경치의 아름다움이 상품으로 되고만다.

자연은 그 자체로 말미암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자연에 대한 미학적 접근에서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소비하고 함부로 건드릴 필요가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은 욕심을 가지고 장악하려고 하고 주저없이 남용하는 퇴폐한 욕구에 대적한다. 환경미학적 감수성과 우리의 자연의 손상에 대한 일종의 분별력이 없이는 인간은 항상 어디서나 즉시 변화를 기획하려고 할 것이다. 환경미학적으로 교양을 갖춘 인간은 자연에 대하여 볼 줄 안다. 그러한 사람은 자연을 우러러 볼 줄 알며, 허심탄회한 상태에서 자연을 누린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황폐화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쉽고, 삶의 의의를 잃고 만다. 자연 속에서 그 형형색색을 보려는 사람은 자연을 비정하게 구분하고 도식화하고 저을질하지 말아야 하며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자연의 신비를 아무런 편견없이 그대로 쳐다보아야 한다. 미학적 감수성은 생태학적 감수성, 즉 자아에 대한 적극적인 근본 情調와 공감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훌륭한 생태학적 교제의 분위기를 발견한다.

미학적 감상능력이 없는 사람은 환경보호의 정조를 누릴 기회를 갖지 못한다. 미학적 교양만이 우리의 지구를 파괴하는 물결을 막을 수 있는 방파제를 이룩한다. 이 미학적 교양은 감상적으로 달빛을 보고 찬탄한다든가 한갓된 자연에 대한 낭만을 갖는 것과는 무관하며,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의의를 교육하고 이를 섬세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다.

미학적 감정만이, 즉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은 자연의 손상에 대한 둔감을 저지할 수 있다. 자연의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볼 줄 알면서 자연을 고찰하는 자는 자연을 존중하고 감탄하고 아끼는 자이다. 자연을 예찬할 줄 아는 자는 그 아름다움을 지키며, 그 아름다움을 단순히 남용하지 못한다.

VII. 맺는 말

우리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대립이나 상극 관계로부터 상생적(相生的) 친교(親交)로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만물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공동의 연대적 살림살이(oikodom)를 하도록, 즉 천, 지, 인, 삼재가 상생하면서 “은 누리를 온전(Integrität)하게 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생태학자들, 철학자들, 신학자들과의 열려진 대화를 통하여 인간 중심주의, 기계적 자연관, 군주적 신관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호의존적 차원에서 새롭게 은누리의 평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 말의 사람은 ‘살음’에서, 즉 살림(살려 주는 것)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은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해 주시는 하느님의 창조 사업의 조력자이다. 하느님이 창조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사람은 만물이 온전하도록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어른이 어른다운 것은 집 안의 모든 가족들을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하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가족들을 살려내는 살림을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를 평화롭게 해야 하며 이 땅에, 은누리에 평화가 깃들게 해야 하는 것이다.

자연은 인간과 분리된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 존재의 부분이며, 인간 자신의 실존적 완전성의 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서, 자연을 완전하고 항상 재생(부활) 가능할 수 있도록 보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연은 공공재화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서도 자연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자연 보호를 위해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개발, 성장의 이데올로기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금속주의와, 자연 보전을 위한 생태학적 윤리학, 즉 환경 윤리학의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지상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윤리학적으로 금속 운동의 실천을 자연 보전의 차원에서 새롭게 교육시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